

 교육부	보도자료 2020. 7. 31.(금) 배포	
---	-----------------------------------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발표

- ◆ 단계별 등교·원격수업 운영 기준 및 방식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광주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1학기까지만 실시
- ◆ 하계 방학기간 중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과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생활 수칙 안내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0학년도 2학기를 대비한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8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며,
 - 이에 앞서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사운영 방안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여름방학 중에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과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한 생활 수칙도 안내하여, 학생들이 하계방학 중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 2학기 원격·등교 수업 기준 등 학사운영 기본방안

- 그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격일(주)등교, 분반제 운영 등 시도별·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학사운영방식을 채택해왔다.

- 특히,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었던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여 학교 내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교육부는 2학기에도 학교 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면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고, 단계별 전환은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 수업 기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유치원, 초·중·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기단계가 1단계를 유지한다면, 2학기에서도 학교의 밀집도를 2/3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 ※ 특히,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고
- 고3을 포함한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은 지역 여건과 학교급 특성, 학생·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 수업·학습의 효과성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권장한다.

※ (예시) 등교(월수금), 원격(화목) → 등교(월화수), 원격(목금) / 등교(9월1주), 원격(9월2주)

○ 대면·등교 수업 확대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되, 2학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유치원의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면 등교·등원수업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또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이고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대면 등교수업을 운영하도록 밀집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한해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대면 등교수업·활동 관련 시도·학교 자율성 강화

- (유치원)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유치원의 등원 자율성 강화
-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대면 등교수업 확대 관련 학교 자율성 강화
- (밀집도 기준 완화)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필요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한 대면 등교수업 확대 가능 (단, 휴식시간 확보)
* 예시) 분반을 통한 오전, 오후반 운영 시, 오전·오후별로 구분하여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
- (밀집도 대상 완화)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미포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기준과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밀집도 최소화 조치(2단계), 원격수업 전환(3단계) 등도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교내 확진자 발생, 지역 감염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학교·지역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기존에 안내된 「등교 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안내했다.

등교수업일 조정 절차

- (기본원칙)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지자체(방역당국)와 협의하여 결정
- (학교단위) 학교·지원청 요청 →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결정 → 교육부 보고
- (지역단위) 시도교육청·지자체(방역당국) 협의 → 교육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주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원래 계획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실시 : 수도권(5.29.~), 광주(7.2.~)

○ 이에 수도권과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2학기 학사운영 계획 마련 시, 1단계(밀집도 2/3)에 준하여 수립하되, 교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학 첫 주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하계방학기간 학습지원 방안 및 생활 수칙 안내

□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학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 학생들이 2학기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방학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학습을 지원하거나, 교과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방학 중 지원 사례

- ❖ (서울) 초등 1~2학년 중심 기초학력 온앤온(on&on) 방학집중교실(공립초 전체 권장)
- ❖ (부산) 초등 1~2학년 '다깨침 썸머스쿨'(346학급 담임교사의 한글, 기초수학 지도)
- ❖ (대구) 초등 3~6학년 '온라인여름학교', 중학교 '온라인여름캠프'
- ❖ (경기) 기초학력 향상 한글해독교실 지원(초등 95개교, 경인교대 예비교원 200명)

□ 교육부는 방학과 휴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안전한 방학·휴가 수칙'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4일(금) 안내하였다.

-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피하고, 피시(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된 장소는 방문하지 않으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은 만지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휴가 수칙'을 숙지함으로써 안전한 방학과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재차 강조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학사운영방안과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8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



붙임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

□ 기본방향

-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등교·원격 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정도) 결정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현재(7.30.)의 감염병 위기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제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 이내 유지 권장
※ 특히,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고
- 유·초등 저학년 등 대면수업·활동 확대 관련 시도·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면 등교수업·활동 관련 시도·학교 자율성 강화

- (유치원)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유치원의 등원 자율성 강화
-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대면 등교수업 확대 관련 학교 자율성 강화
- (밀집도 기준 완화)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필요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한 대면 등교수업 확대 가능 (단, 휴식시간 확보)
* 예시) 분반을 통한 오전, 오후반 운영 시, 오전·오후별로 구분하여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
- (밀집도 대상 완화)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미포함

-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고등학교 포함)**은 지역적 여건·학교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단위학교가 자율 결정**
 - ※ 2학기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 자율 판단, 특정학년 장기간 원격수업 지양
 - ※ 단위학교에서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 수립 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하여 결정
- 수업·학습의 연속성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등교·격주 등교 권장**
 - ※ (예시) 등교(월수금), 원격(화목) → 등교(월화수), 원격(목금) / 등교(9월1주), 원격(9월2주)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 **(기본원칙)**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특수학교)**
 - (1단계)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단계) 학교 내 밀집도 2/3 유지를 권장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3단계)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시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특수학급)** 단계별 소속 학교의 학사운영을 따르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 시 2학기 학사운영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참고하고, **학교 특수성·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밀집도 최소화 조치, **원격수업 전환 등 예방적 선제 조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2·3단계) 조치는 **정부 차원(중대본)의 기준을 참고**하고 세부적인 학사운영 방안은 별도 마련
- 교내 확진자 발생, 지역 감염 등으로 인한 학교·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 원격수업 전환 시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조치

등교수업일 조정 절차

- **(기본원칙)**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지자체(방역당국)와 협의하여 결정
- **(학교단위)** 학교·지원청 요청 →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결정 → 교육부 보고
- **(지역단위)** 시도교육청·지자체(방역당국) 협의 → 교육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수도권·광주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광주에 시행 중인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당초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
- **1단계(밀집도 2/3)에 준하여 2학기 학사운영 계획 수립**토록 안내
 - ※ 다만, 2학기 첫 일주일만은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밀집도 최소화 유지 필요

□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및 방역수칙 준수

- **(기초학력 등) 방학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 대상으로 집중학습 지원 및 교과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 방학 중 지원 사례

- ❖ (서울) 초등 1~2학년 중심 기초학력 온오프(on&on) 방학집중교실(공립초 전체 권장)
- ❖ (부산) 초등 1~2학년 ‘다깨침 썸머스쿨’(346학급 담임교사의 한글, 기초수학 지도)
- ❖ (대구) 초등 3~6학년 ‘온라인여름학교’, 중학교 ‘온라인여름캠프’
- ❖ (경기) 기초학력 향상 한글해득교실 지원(초등 95개교, 경인교대 예비교원 200명)

- **(방역수칙) ‘안전한 여름휴가·방학 보내기’ 수칙 준수** 협조 요청
 - **3행(行)** :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② 자주 손 씻기, ③ 사람 간 거리 유지하기
 - **3금(禁)** : 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②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③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향후 계획

-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은 8월 초 별도 발표 예정**